



## Sonny Perdue 미국 농업부 장관 방문



2019년 5월 15일 소니 퍼듀 (Sonny Perdue) 미국 농업부 장관이 서울대학교를 방문했다. 퍼듀 장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의 내한 일정 가운데 15일, 서울대를 찾았다. 퍼듀 장관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만나 농업기술의 중요성과 농업분야가 직면한 도전, 그리고 서울대의 농업 분야 연구 역량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약 20분

간의 담화를 끝으로 대학 본부를 뒤로하고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내방한 퍼듀 장관은 '농산물 무역, 농업혁신기술'을 주제로 농생대 학생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생대 집행부 교수들을 비롯하여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미국의 농업 현안에 관한 왕성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퍼듀 장관은 뛰어난 학생들에게 영감을 얻고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요청했다고 하며, 서울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농업인들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기를 당부했다.

## 제15회 생명공학캠프 - 미디어로 펼치는 생명공학 NIE



2019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주관하는 제15회 생명공학캠프가 개최되었다. 미디어로 펼치는 생명공학 NIE라는 주제로 시행된 본 캠프에는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의 중학생 89명이 참석, 닷새간 특강을 들으며 합숙을 진행하였다.

금번 캠프는 전국에서 234명의 학생이 지원하여 경쟁률 2.6:1을 기록하였다. 2018년 캠프에 2.5: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는 더 높은 경쟁률을 보여, 매년 성장하는 캠프의 인기를 알 수 있었다.

캠프는 두 기수로 나뉘어 각각 2박 3일 일정으로 참여하였다. 해당 캠프 기간동안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내 호암교수회관에서 합숙하였다. 두 기수 모두 공통적으로 1,2일차에는 생명공학 특강 및 실험·실습, 박물관·미술관 견학, 생명공학NIE를 진행하였고, 3일차에는 에코캠퍼스 투어 및 수료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석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은 입소식 축사에서 생명공학이 현재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주도해나갈 분야라고 언급하며 "짧은 일정이지만 본 캠프가 청소년 여러분의 호기심을 당기는 촉매역할이 되기를 바란다. 세계적 수준의 교수님들의 특강과 실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을 남겼다.

###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6~8면\_Interview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10면\_농기자가 간다

11면\_기금출연 소식

12면\_농생대 사람들

## 신임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 교무부학장 김진모 교수



변화의 내용과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고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생대 교무부학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움도 잠시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학의 모든 행정이 다 중요하지만 교무행정이 교수 채용에서부터 승진, 퇴임에 이르는 전 과정 뿐 아니라 학생의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까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모름지기 행정은 대학 본래의 미션 달성을 지원하는 기능인만큼 행정업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무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일하고 행동함에 있어 저를 비롯한 교무행정실 모두는 교무행정의 고객이 교수님과 학생들임을 명심하고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 신속하게 응답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도록 애쓰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학생부학장 김현석 교수



우리나라의 농업혁명과 산림녹화를 선도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학생부학장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농생명과학과 산업은 우리 대학의 슬로건인 “변화를 위한 도전 (Challenge for Change)”과 같이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사고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전 정신과 노력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행복하고, 교수님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의 재능을 발굴하며,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자세로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며 배우는 학생부학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구부학장 이은진 교수



농생대에 부임한 지 올해로 7년 차에 들면서 그동안 선배 교수님들을 보며 언젠가는 농생대를 위하여 나도 봉사할 날이 있겠지라며 아주 막연하게나마 생각만 했던 연구부학장이라는 중책을 8월 1일 자로 갑작스레 수행한 지 이제 막 한 달째 접어들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일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도 갖게 됩니다. 2019년 현재 농생대는 연 약 300억 이상의 연구비를 수주 및 운영하는 매우 큰 단과대로 성장을 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대학교 전체 단과대 중 3~4위에 해당하는 연구비 규모입니다. 교수님들 개개인의 열성과 노력으로 농생대 연구비 및 연구 성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연구부학장 보직을 수행하면서 교수 및 직원분들이 연구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수월성과 간편성을 제공 받아 복잡한 연구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농생대 연구행정실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2020년 BK21 PLUS 사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 준비를 위하여 농생대 교수님들 그리고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사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농생대 모든 교직원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바라며 이제 막 연구부학장직을 수행하는 저에게 발전적인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전략본부장 김학진 교수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기획전략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농생대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잘 정착되어 더욱 발전하는 농생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안인 75동 재건축을 위한 기금 모금, 학술림과 수목원의 무상양여와 발전모델 수립, 수원캠퍼스 융복합플랫폼의 효율적 활용, 농장과 관련 시설 확충, 평창과 시흥 캠퍼스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농생대 연구 발전 프로그램 정착 등 많은 중요한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 대학과의 학술교류 사업, 개발도상국과의 학술 및 연구 협력 사업을 통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해외 명문 농생대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격려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석하 학장 연임 기념 인터뷰



지난 7월 26일을 끝으로 이석하 농생대 제25대 학장의 2년간의 임기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5월에 있었던 학장추천위원회의 의견수렴결과 이석하 학장은 재신임을 받았고, 곧바로 26대 학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이번 연임은 역대 학장 사상 세번째 연임이다. 연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학생 기자단이 이석하 학장을 만나 지난 임기의 성과를 짚어보고 새로운 임기의 목표를 들어보았다.

### 지난 2년을 돌아보며

1906년 개교 이래, 110년을 넘는 역사동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난 2년도 이러한 발전의 역사를 계승하여 세계 최고의 농업생명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이었다. 이를 증명하듯, 대학 평가 지표인 QS ranking은 서울대 농생대를 2017년 38위에서 2019년 31위로 2년 만에 일곱 계단 상승시켰다. 이는 이석하 학장 임기 중 수행된 여러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석하 학장은 “농생대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고, 농생대 교수님 및 연구원분들이 본연의 연구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며 ‘인재양성’과 ‘연구 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따라 정책이 수행되었음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18년 2월 전라남도 광양시 남부학술림 내에 조성된 산림교육연구센터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교육 활성화, 산림과학 인재 양성,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더하여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에서도 도시숲 연구센터 및 기후변화 대응센터 등 농생대의 교육, 연구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당초 ‘문화’에 초점이 치우쳐져 있었으나, 17년 우리 대학의 제안으로 도시농업 콘텐츠를 담게 되어 농생대 시설 확충에 기여하게 되었다.

외부의 굵직한 건립 사업 뿐 아니라 내부적인 개편도 있었다. 18년 5월 농생대 홈페이지는 모바일 및 태블릿 환경을 지원하고, 검색 데이터베이스(교수, 직원, 연구기관, 학부 및 전공 정보 등)를 구축하여 유저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편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사업을 통해 농생대는 세계적인 연구대학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다.

### 다가오는 2년간의 목표

이석하 학장이 밝힌 연임의 주된 동기는 정책의 연속성이었다. 이석하 학장은 “과거보다 의사결정과정의 복잡해져 2년간의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직무 수행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연임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밝힌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현재 농생대의 숙원 사업은 공간 부족 문제해결이다. 현재 사용 중인 농생대 본관 200동의 경우 2003년 관악 이전 당시 106명의 교원을 기준으로

설계했으나 2019년 전임교원의 수는 122명까지 늘어났으며 연구비도 2003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연구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석하 학장은 “지속적으로 75동 재건축을 추진하고, 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 센터를 신축하여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과 함께 대두되는 스마트 농업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생명자원 스마트파크 및 글로벌 스마트팜 융합연구소를 설립하여 첨단 교육·연구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학생들, 다양한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 필요

농생대에서는 학부생/대학원생에 대해 맞춤형으로 다각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이석하 학장은 ‘우리 단과대학은 전통적인 첨단과학에서 시작하여 이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고자 Global Challenger Program 및 인턴십 제도를 시행 중’이라 했다. 이같이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 역시 농생대의 큰 목표다. 또한 실제 전공 분야 뿐만 아니라 창업 분야까지의 폭 넓게 진출할 수 있는 농학 기반 스타트업 인재를 길러내고자 창업교육 및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 나아가 농생대 단일 학문의 연구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융합창의 연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통섭, 간학문적 연구능력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융합창의 연구프로그램이나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좋은 기회이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성장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 학생 및 동문 분들께 남기는 말

지난 100년동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 대학평가에서 3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현안과제들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석하 학장은 동문 및 학생들에게 국내를 넘어 세계 Top10안에 드는 최고의 대학으로 향하는 모교의 모습을 지켜보고, 학교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요청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지난 2016년 농학 110주년 행사에서 CALS VISION 2020을 통해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향후 장기적인 농업 및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길러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공간부족문제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로 다소 난항을 겪고 있지만, 농생대의 역량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의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믿기에 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더불어 이러한 발전에 모두가 동참하기 바란다고 이석하 학장은 덧붙였다.

## 우한폴리텍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MOU) 체결



2019년 5월 2일 우리 대학은 우한폴리텍대학교 식품과학공학 학교(School of Food Science and Engineering)와 학술교류협정(MOU)를 체결하였다. 우한폴리텍 대학은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대학으로, 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다학제 종합대학이다. 특히 식품관련학과가 유명하며, 식품과학 및 공학분야에서는 후베이성에서 국내 일류 건설학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MOU 체결식에는 우리 대학 집행부 교수들과 우한폴리텍대학의 대학당위원회부서기(부총장) Shui-Yuan Cheng 외 4명의 중국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양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여, 연구 인력 및 학술 자료의 교환 등의 영역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식품과학 및 공학분야에서 양교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한은 지리적으로 중국의 중심에 위치한 대도시로서, 향후 본교가 중국내륙지역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때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의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년 5월 10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현 미래 캠퍼스)와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원주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의 분교로서 8,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양 대학은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학술 자료의 상호 교환 등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김창수 학장은 향후 아프리카에 농업대학 건립 사업을 계획중에 있는데, 현재 연세대학교에 농학 관련 대학이 없기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자문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본 행사에는 본교 집행부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경대학 김창수 학장, 과학기술대학 주영교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 스승의날 기념행사



5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모교에서 평생을 가르침과 연구에 헌신하신 명예교수님들을 초청하여 고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30명의 명예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고, 집행부 교수 및 20여명의 현직 교수가 자리하여 이들을 환영하였다.

간담회는 농생대 기획부학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이석하 학장의 환영사, 그리고 명예교수 분들의 답사로 이어졌다. 명예교수님들은 비록 학교에서 한 발치 물러섰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모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하여 주었다. 2004년 은퇴 이후 명예교수로 추대된 김호탁 명예교수는 “올해 QS 대학랭킹 31위를 기록한 모교의 성장을 축하하고 이를 위해 힘쓴 후배 교수들에게 감사

하다”라며 모교의 발전을 축하해주었다. 이석하 농생대 학장은 ‘농업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선배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뜻을 이어받아 모교 역시도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겠다’며 말을 남겼다.

## 5513 아일랜드, 농생대-자연대-공대 연합 봄 축제 개최



2019년 5월 16일 농생대와 자연대 그리고 공대의 학생 연합 봄축제가 개최되었다. 올해 봄축제는 특별히 5513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서울 시내버스 5513노선에 속한 3개의 단과대(농생대, 자연대, 공대)가 연합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5513아일랜드라는 이름의 연합 페이스북 운영을 통해 학생들간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연합축제기획단에서는 대학별로 3개로 나뉘어 각각의 부스를 운영하였다. 농생대에서는 75-1동 광장에서 포토존, OX퀴즈, 미니오락실, 푸드트럭 등을 운영하였다. 자연대는 정보화본부 앞에서 놀이기구, 가위바위보 토너먼트 등 부스를 운영하였고, 공대는 붉은 광장에서 방탈출 등의 콘텐츠를 마련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저녁에는 샌드페블즈 및 그래핀 등의 동아리 공연과 바닐라 어쿠스틱의 초청 공연이 이어졌다.

## 농장 필모식 개최



2019년 5월 27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농장에서는 필모식 행사를 열었다. 필모식(畢耗式)은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서 서울대학교 농장에서는 매년 모내기를 마치고 소속 교원·직원·학생 및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필모식은 옛 농기구 전시회 및 사진전으로 식전행사를 개최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갖추었다. 필모식 이후에는 모내기 체험행사가 이어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실제 모내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금번 필모식에는 이석하 학장을 비롯한 현직 교수 12명, 46명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2019년 상반기 교수학사협의회 개최



2019년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2019년도 상반기 교수학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교수학사협의회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60여명의 전임교원이 참석하여 대학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날은 속초 롯데리조트내 회의실에서 교수학사협의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각 행정실별 추진 업무 보고를 통해 농생대가 안고 있는 현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새롭게 농생대에 부임한 신입교수 4인의

자기소개 및 연구분야 발표가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그룹별로 나뉘어 설악산 케이블카 및 척산온천 그리고 신흥사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 청도농대와외의 심포지엄



2019년 6월 25일 서울대학교 203동 SPC홀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중국 청도농대의 공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청도농대(Qingdao Agricultural University)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위치한 공립대학으로, 1951년에 개교되어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 거점 농업대학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교간에 개최되는 12번째 공동 심포지엄으로 Plant medicine and biotechnology라는 주제로 라는 주제로 응용생물화학부(응용생명화학, 식물미생물학, 곤충학)의 주관하에 개최되었다. 청도농대 측에서는 MU, SHAO-YAN 부총장 및 LIU, TONG-XIAN 식물의학대학학장을 포함하여 9명의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이날 행사에는 11명의 발표자를 비롯

하여 4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CJ제일제당 산학협력



2019년 7월 16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CJ제일제당과 인재 육성 및 채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CJ제일제당은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으로 국내 식품산업 발전의 최첨단에 위치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우수한 학부/대학원 인력에게 장학금 및 학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향후 기업 연수와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 협약으로 본교에 소속된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도움을 받고, CJ제일제당에서도 우수한 바이오/식품분야 인재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대 농생대 이석하 학장 및 집행부 교수들과 CJ제일제당 측 강신호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강진희 식품인사담당, 강대익 식품연구소 연구기획담당이 참가하였다.

## 농생대 편의시설 안내

농생대 뉴스레터 10월호 이모저모에서는 농생대에서 이용가능한 각종 편의시설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학생 및 동문님들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행정실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하면 운동 시설, 샤워 시설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11호 / 06:00-22:00  
이용료 : 1개월(10,000원) / 인원 : 100명 제한



학생상담센터로 학업, 인간관계 등으로 힘들 때 언제나 열려있는 삶의 쉼표같은 공간.  
전화(880-2297) or cal\_s\_counsel@snu.ac.kr  
예약 후 이용 / 209호 / 월 - 목 13:00-18:00

농생대 학생들이 자유롭게 도서 열람 및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다.  
S-CARD를 이용해 출입이 가능하다.  
운영시간 : 7:00-23:00

**200동**

9F 샤워실(상록관)

8F

샤워실(상록관/생명관) 7F

6F

샤워실(상록관/생명관) 5F

4F 옥상정원

3F

2F 입학진로정보실 / 체력단련실

벨에빠Café / U-space / 정보검색실 / 여학생휴게실 1F

B1

**75-1동**

농식 두레미담 3F

4F

5F

2F 농담

농학도서관 1F

B1 상록열람실



**여학생휴게실**  
여학생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난방 시설, 여성용품까지 갖춰져 있다.  
과 사무실에 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1004A호 / 7:00-18:00

3F - 11:00-14:00  
4F,5F - 11:30-14:00  
17:00-19:00

농학 분야의 장서를 두루 갖춘 농생대 도서관. S-CARD를 이용해 정보검색실, 그룹 스터디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 : 9:00-18:00

## 파스퇴르의 열정을 담은 류왕식 소장을 만나다



대한민국 첨단 연구개발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 이곳의 현대적 빌딩 숲을 따라 들어가다보면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접할 수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세계적인 바이러스학자이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류왕식 동문(출산 74)을 만날 수 있었다.

류 동문은 조금 일찍 도착한 우리를 너살 좋게 맞아주었다. 탁자에 놓인 다양한 전공서적들은 그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학자임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 중 ‘바이러스학’ 교재는 기자에게도 익숙한 책이었다. 류 동문이 직접 집필한 이 책은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도서관 내지는 과방에서 한번쯤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이기도 한 그는 강의를 하며 한국에 마땅한 교재가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고 한다. 학생들이 더욱 양질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하길 바랐던 마음에서 그는 자신의 강의노트로 사용하던 것을 주제별로 묶어 책을 쓰게 됐다. 이는 그가 실천하는 지성임을 잘 나타내는 대목이었다. 이후 그의 저서는 평단의 좋은 평가를 받아 세계적인 학술지인 Cell의 출판사인 Elsevier Academic Press에서 연락을 받아 영문으로도 출판하게 되었다.

이처럼 저명한 바이러스학자인 류 동문에게 우리는 어떻게 바이러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해맑게 웃으며 순전한 우연이었다고 대답했다.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길을 나섰지만 당시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비시민권자를 받아주겠다고 한 교수는 거의 없어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들어가게 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지금은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있었다고 해도 생화학 분야 연구를 했을 것이라고 대답할 만큼 천직을 찾았다고 했다.

오랜 연구생활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류 동문은 한국에 돌아와 첫 논문을 출판했을 때라 답했다. B형 간염을 주제로 연구한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수회 거치는 수정 과정 없이 최고수준의 저널에 한 번에 게재됐다. 연구환경도 미국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이끌며 책임자로서 쓴 논문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고 한다.



류 동문은 지난 2017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파스퇴르연구소는 파스퇴르를 기리며 국

제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염병의 메커니즘 등의 기초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약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전 세계 33개국에 퍼져있는 연구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을 만큼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류 동문은 그 중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3대 소장으로 부임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의 파스퇴르연구소 소장임명된 그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나 에볼라 등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류 동문은 30년 전과 비교해 국내 학계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교수자가 많아 과거 필수처럼 생각되었던 유학도 선택이 된 것 같으며 국내 학계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이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해선 먼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이 소속돼 있는 국제연구소인 파스퇴르연구소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파스퇴르연구소에서는 모든 일을 영어로 진행하며 지부 간에 네트워킹이 잘 되어있어 인턴을 교류하기도 한다.

인터뷰를 마치며 류 동문은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임하라고 전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 열심히하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류 동문의 말은 “Chance favors only the prepared mind”라는 파스퇴르 박사의 말을 떠올린다.

##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스물다섯 번째 주인공은 식물생산과학부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의 이찬 교수!

이찬 교수의 사무실이 있는 경력개발센터 소장실에는 물안경을 쓰고 피아노를 치는 소년의 그림이 걸려있었다. 경력개발센터 소장으로 부임하며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경력개발센터로 가지고 왔다고 한다. 그림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이 교수의 바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찬 교수  
(식물생산과학부)

### 교수님이 현재 전공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찬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 및 산업심리학을 전공하였다. 산업 교육에 뜻이 있어 학부 졸업 후 레고 코리아에서 HR 전문가로서 3년을 근무하며 채용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개인의 실력과 관계 없이 회사 사정에 의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들을 목격했고, 스스로 배움을 넓히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미국으로의 유학길에 올랐다. 유학을 떠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할 때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도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느냐며 직장 상사가 말렸지만, 더 큰 배움에 뜻이 있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HRD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회사 철수했어요." 이찬 교수는 세상 일은 알 수 없으므로,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후 이찬 교수는 LG전자서비스 미국법인 인사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더 많은 경력을 쌓았고, 2006년 3월부터 한국에 귀국하여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에 부임, 현재는 교수직을 맡고 있다. 부임 이래 성과관리, 직무분석, 코칭관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직무분석 및 역량 모델링 △성과관리 시스템개발 △체계적 현장직무 교육훈련(S-OJT)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 및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찬 교수는 교수로서의 역할은 크게 교육, 연구 그리고 봉사라고 나뉜다고 말한다. 그 중 교수로서 봉사의 일환으로, 현재 그는 경력개발센터의 소장을 맡아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소장 부임 이후, 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발전시켜 올해에는 회사들과 컨택하여 이공계생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다.

### 학생들에게 한마디

이찬 교수는 진로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을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진로를 정할 때는 좋아하는 것(지속성), 잘하는 것(수월성) 그리고 해야하는 것(가치)의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찬 교수는 농생대 학생들에게 끈기와 투지를 가지고 자신이 꾸준히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찾길 당부한다. 또, 이찬 교수는 도

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언을 전했다. "후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 두 번째는 시도도 안해보아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이찬 교수는 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기보다는 부딪혀보고 그를 통해 더 많은 경험과 배움을 쌓기를 권장한다. 도전과 개척정신의 중요성은 아마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며 이찬 교수가 직접 느낀 바이자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는 교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다.

### 도서 추천



#### 『언어의 온도』 (저자 : 이기주)

이찬 교수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라는 책을 추천했다. 실제로 본인도 1년에 30번씩 읽을만큼 아끼고 즐겨읽는 책이라고 한다. 2016년에 발간되어 판매 부수 100만부를 돌파한 이 책은 저자가 일상에서 느낀 의미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과 유래, 그리고 그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이 담긴 책이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의 제목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언어의 차가움과 따뜻함,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다시 그 상처를 보듬어줄수도 있는 언어의 신비로움을 가르킨다.

이찬 교수가 책 속에서 특히 좋아하는 구절은 논어의 구절 '애지육기생'이다.

'사랑이 사람을 살아가게 한다 어떻게 한 세상을 살아가는가. 사랑 덕에 한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 사랑, 삶, 사람.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데 주객이 전도되어 중요한 것들을 잃곤 한다.'

어쩌면 따뜻한 격려의 한 마디, 진심이 담긴 위로들은 차갑고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찬 교수는 부디 농업생명과학대의 학생들에게 사랑스럽고 온기가 가득한 언어들 이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하였다.

###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이찬 교수는 다음 호 주자로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의 정옥주 교수를 추천하였다. 정옥주 교수의 추천 도서는 다음 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 학생기자단 제10기 김준수, 임지수

<2019. 5. 20. 농민신문>

## 기로에선 백수오 사업



양태진 교수  
(식물생산과학부)

면역력 강화, 혈행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백수오는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이 발생하면서 백수오산업은 위기에 처했다. 당시 관련 회사와 농가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사태는 종결됐지만 급성장하던 백수오산업은 가파르게 추락했다. 최근 들어 다시 백수오 수요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지만, 과연 농가들이 계속 백수오를 재배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백수오는 한반도 태생 식물이다. 산속에 숨어 있던 백수오의 가치를 발굴하고, 재배법을 보급하고, 관련 가공제품을 개발해 많은 소비자가 백수오를 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짜 백수오 파동이 발생한 지 4년이나 흘렀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2016년에는 농민들이 생산한 백수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인 유전자검사법(PCR)에 의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폐기 위기에 몰렸다. 백수오 파

동 이전에는 100농가를 웃돌았던 제천의 백수오 재배농가는 급격히 쪼그라들어 지금은 5농가만 남았다.

그렇다면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의 주범으로 독극물인 양 오인당하고 범죄자 색출하듯 매도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이엽우피소라는 식물은 과연 나쁜 식물인가? 우리가 백수오를 재배하듯이 중국에서는 많은 농가가 이엽우피소를 재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백수오가 식품으로 등록돼 있고, 중국 약전에는 이엽우피소가 등록돼 있다. 백수오나 이엽우피소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안전한 식물이다.

4년 전 가짜 백수오 파동을 야기한 유전자검사법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마치 완벽한 것처럼 적용돼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약용식물 판별에 대한 유전자검사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이를 우리나라에서 백수오에만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규제를 위한 유전자검사법이 아니라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검사법이 돼야 한다.

<2019. 6. 5. 한국경제>

## 규제가 푸드테크 발목 잡아선 안돼



이기원 교수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푸드테크 투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는 연간 매출액의 2.2%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0.36% 수준이다.

글로벌 식품기업은 R&D에서도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며 대학 등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에 적극적이다. 아마존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무인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엔 미국 최대 유기농 식품 체인 홀푸드를 인수하고 신기술을 적용해 신선식품 배달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IBM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대형 식품유통업체와 협력해 식품의 이력 추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해외 진출도 하는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는 푸드테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정부, 민간기업 모두 식품분야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 혁신성은 크지만 불확실성 또한 적지 않은 푸드테크 분야에 국가가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식품 대기업들도 푸드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에 육성하고 건전한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허파하는 노력도 절실하다. 예를 들어, 포장지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 글자 간격은 -5% 이상, 장평(한 글꼴의 상대적 넓이)은 90% 이상 등으로 너무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유주방도 조리시설의 공유를 막는 '주방 하나에 식당 하나' 규정에 갇혀 있다.

세계 식품산업은 푸드테크로 인해 커다란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융합은 가속화되고 있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갈라파고스 규제'를 벗어던져 혁신을 좇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7.24. 농민신문>

## 축산업의 미래 발전전략



최은재 교수  
(식물동물생명공학부)

축산업의 영양적·경제적 가치가 주목받으며 축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축산업 생산액은 20조 2000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48조9700억원)의 40%를 웃돈다. 약 30년 전인 1989년 축산업 생산액이 3조 4000억원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제 축산업이 농촌경제의 핵심성장산업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또한 깨끗한 농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축분뇨 처리 등 환경오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축산업의 위기는 오히려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선 축산업의 비전 또는 발전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축산업은 단순히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축산분뇨의 에너지화 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축산업을 미래의 생물자원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친환경축산'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아래 ▲올바른 비전 수립과 공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 이같은 축산업의 잠재적인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축산이 돼야 한다.

축산업은 1·2·3차산업을 융합한 6차산업화를 통해 소비자의 효용증대와 생산자의 수익증대라는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디자인과 기능성 측면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를 제품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분야의 핵심산업인 축산업은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판매하는 미래 생명산업이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첨단산업이자 단계별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산업 등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로써 축산업은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레드오션이 아닌, 앞다퉈 뛰어드는 신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 스톤브릿지벤처스 손호준 이사를 만나다



손호준 이사는 2004년 농경제사회학부에 입학하여 졸업 후 시티은행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8년 전 현재의 스톤브릿지벤처스로 옮겨 이사직을 맡고 있다. 학부생 시절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창업을 경험하고 벤처캐피탈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어 언젠가 벤처캐피탈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손

이사는 현재 스톤브릿지벤처스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 중이다.

스톤브릿지벤처스는 약 4천억 원 정도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로, 제조업, 모바일, IT, 헬스케어, 바이오,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티켓몬스터, 배달의 민족, 직방 등 모바일 영역의 유니콘 회사들에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손호준 이사가 현재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스타트업에게 금적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스톤브릿지벤처스의 손호준 이사에 대해 벤처캐피탈의 운영방식과 창업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 스톤브릿지벤처스만의 특징

벤처캐피탈은 투자를 결정할 때 미래가치와 발전가능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둔다. 주로 시장상황, 회사의 기술력, 경영진 및 창업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한 기업 10개 중 5개는 잘 안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스톤브릿지벤처스는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에게 여러 경영 및 기술 인력들을 제공해주는 등 금전적인 부분 이외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손 이사는 특히 '작은 정보로 큰 인사이트를 얻어 과감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보이면 투자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투자의 펀드 규모, 영역, 확신도, 시장성 등등의 여러 기준을 통해 투자가 진행되고, 훌륭한 대표이사 및 창업주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투자를 하는 것이 스톤브릿지벤처스의, 손 이사의 투자 철학이다.

### 창업을 바라보고 있는 후배들에게

“투자를 했던 회사의 대표들을 보면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창업에 대한 조언으로 창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운'이다. 과거에는 투자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고 벤처캐피탈이 우리나라 사회에 뿌리 내린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 자금도 많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높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의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정상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면 도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손 이사는 현재가 창업을 하기에 시장적으로 매우 좋은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며 불가능은 없다는 말을 전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다. '창업은 문제해결'이므로 투자하는 시간의 절대적인 양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약 3년간은 다양한 동기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시간에 걸쳐 투자를 하기에 벅찰 수 있다. 그러므로 손 이사는 이에 대해 "3년 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서 그것을 지표로 삼을 수 있어야 그 영역에 대한 관한 관심과 함께 지속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놓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배움의 속도'이다. 요즘은 인터넷이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도전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지식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창업하고자 하는 영역에 있어 앞서 창업한 사람들의 경험과 성장 및 서비스까지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에 본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활동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의 절약이자 곧 자본의 절약으로, 즉 같은 시간 안에 누가 이러한 수단을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성장을 하는지 또한 창업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역대 누적금액 : 36,042,030,815원

기금출연 (2019. 03. 01. ~ 2019. 08. 31.)

당기 누적금액 : 127,979,880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이슈일 장학회	23,000,000	㈜한성티앤아이	6,000,000	송인홍(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600,000	서민영(기획전략본부)	120,000
원예학과동창회	20,000,000	㈜누보	5,000,000	최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600,000	하기호(학술팀)	120,000
(주)에니원	12,000,000	서울신문사	5,000,000	강문성(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499,980	류준구(농장)	60,000
㈜농우바이오	10,000,000	㈜스마트나노	3,000,000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499,980	손창은	60,000
㈜아시아종묘	10,000,000	㈜위트	2,000,000	손영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499,980		
㈜이앤티	10,000,000	㈜팔한농	2,000,000	이인복(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499,980		
이병일(농생대 명예교수)	10,000,000	㈜스킨사이언스	2,000,000	최인규(산림과학부 교수)	499,980		
		㈜엘씨에스바이오텍	1,310,000	최진용(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499,980		
		㈜도던엠디에스	1,000,000	김성배(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480,000		
				우제성(산업인력개발학 05)	300,000		
				김대우(NICEM)	180,000		
				강상호(학술팀)	150,000		

## 농업생명과학교육 · 연구센터 건립기금 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역대 누적금액 : 2,309,912,000원

기금출연 (2019. 03. 01. ~ 2019. 08. 31.)

출연 합계 : 17,650,000원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김도순(식물생산과학부 교수)	3,000,000	정봉진(농학 73)	600,000
류관희(농공학 63)	2,000,000	나승일(식물생산과학부 교수)	600,000
이경준(농생대 명예교수)	2,000,000	양태진(식물생산과학부 교수)	600,000
강규영(농화학 68)	1,500,000	이혜숙(식품공학과 85)	600,000
농생대 85년 입학생 일동(농생대 85)	1,500,000	임용재(농업경제학 67)	300,000
윤혜정(산림과학부 교수)	1,250,000	김용상(농화학 83)	250,000
조종수(농생명과학연구원 교수)	1,000,000	김동진(산림과학부 14 김성혁 父)	180,000
나용준(농생대 명예교수)	1,000,000	박준호(환경재료과학 02)	120,000
강병철(식물생산과학부 교수)	1,000,000	하종규(농생대 명예교수)	100,000
		서민영(기획전략본부)	50,000



매일, 열원의 만원이 선한 인재를 만듭니다.

### 매월 만원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1666-2930**



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매월 30만원 X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1666-2930**

www.snu.or.kr 에서 내려받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주시거나 참여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02-880-8004)

## [동문동성]

- ▶ **장승진** 동문(농학 80)은 5월 7일 임기 3년의 축산물품질평가원 제11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 **박영범** 동문(농경제84)은 5월 17일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에 임명되었다.
- ▶ **이재욱** 동문(농교육 81)은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 ▶ **고영진** 동문(농생물 76)은 6월 3일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 ▶ **정용덕** 동문(식품공학69)은 7월 15일 충신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 ▶ **김대관** 동문(임학과 84)은 7월 1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교수동성]

- ▶ **이인복**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2019년 5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축산환경학회에서 수여하는 우수학술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11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 **임정빈**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2019년 6월 1일부터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집행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 ▶ **조성인·이중용** 교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는 2019년 6월 28일 개최된 한국농업인공지능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 ▶ **양태진** 교수(식물생산과학부), **박영준** 교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는 2019년 7월 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제2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 [동창회 소식]

### ▶ 2019 상록의날 및 동창회장 이취임식



2019년 5월 11일, 모교 201동 101호 대강당에서 85학번 주관의 상록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1부에서는 동창회 정기총회와 16회 자랑스러운 상록인대상 및 감사패 시상, 동창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상록인대상 시상에는 이순형(농공70) (주)파워킹 대표, 박은우(농생물73) 모교교수, 최윤재(축산73) 모교교수가 수상하였고, 감사패 시상에는 구자옥(농학60) 포상위원장, 박종열(임학석71졸) 대학원동창회장, 하종규(축산석77졸) 상임부회장, 신희순(잠사69) 상임부회장, 안효진(원예84) (주)해농상사대표, 이범권(축산75) (주)선진대표가 수상하였다.

이어서 상록의날 주관학번인 박지원(농화학85) 전체 대표가 류관희 동창회장에게 후원금과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이석하 모교 학장에게 모교 연구관 건립기금을 전달하였다.



서병륜 동창회장

동창회장 이·취임식에서는 제10대 류관희 동창회장이 제11대 서병륜 동창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전달하였다. 류관희 동창회장은 이임사에서 재임기간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동문들과 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서병륜 신임 동창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선대 동창회장들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시스템 아래에서 동문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의 기량을 펼치지 않고 4차산업 혁명기를 맞아 서로 소통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생산의 'AFP(Agro Food Platform)' 장을 만들겠다 선언 하였다.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전략본부 T.880-4510/4538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 식물생산과학부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물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학술림 T.880-4526 F.873-2031  
목장 T.(033)339-5901 F.(033)339-5909  
농학도서관 T.880-4774~5 F.884-0182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농업공작실 T.880-4619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식품공장 T.880-4824  
농생명과학동기기술 T.880-4845 F.888-484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세균의사소통창의연구단 T.880-4686 F.873-2317  
식물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 역량 강화사업단 T.880-4631 F.873-3565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품분자육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5 F.886-4898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 T.880-4735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5354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홈페이지 <http://greenbio.snu.ac.kr/>  
T.(033)339-5680 F.(033)339-5689

★ 소식을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전략본부 (T. 880-4538, sys4477@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